

나비기금 1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나비기금 10년, 세계 전시성폭력 피해자의 희망으로 다시 한 번 날다!

일시: 2022.3.4.(금) 오후 14:00-16:30

장소: 온라인 Zoom

주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신청링크: <https://bit.ly/ButterflyFund10> 또는 QR코드 스캔



신청링크

14:00-14:10 개회사

사회: 한경희(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14:10-15:50 발표

전시성폭력 여성들과 함께한 나비기금 10년 활동 돌아보기

김해슬(정의기억연대 활동가)

아시아 지역 전시 성폭력 현황과 과제, 제언

이유경(국제분쟁 전문기자)

나비기금-아디 팔레스타인여성 트라우마 힐링센터 활동보고

이동화(아디 활동가)

나비기금-베트남 연대 방안 제언

권현우(한베평화재단 활동가)

나비기금-로힝야 연대 방안 제언

권정화(월드비전 활동가)

15:50-16:30 질의응답 및 토론

문의: info@womenandwar.net

목 차

프로그램.....	3
전시성폭력 여성들과 함께한 나비기금 10 년 활동 돌아보기 김해슬(정의기억연대 활동가).....	4
아시아 지역 전시 성폭력 현황과 과제, 제언 이유경(국제분쟁 전문기자).....	13
나비기금-아디 팔레스타인여성 트라우마 힐링센터 활동보고 이동화(아디 활동가).....	43
나비기금-베트남 연대 방안 제언 권현우(한베평화재단 활동가).....	50
나비기금-로힝야 연대 방안 제언 권정화(월드비전 활동가).....	66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00~14:10	사회: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 개회사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14:10-15:50	발표 전시성폭력 여성들과 함께한 나비기금 10년 활동 돌아보기 -김해슬(정의기억연대 활동가) 아시아 지역 전시 성폭력 현황과 과제, 제언 -이유경(국제분쟁 전문기자) 나비기금-아디 팔레스타인여성 트라우마 힐링센터 활동보고 -이동화(아디 활동가) 나비기금-베트남 연대 방안 제안 -권현우(한베평화재단 활동가) 나비기금-로HING야 연대 방안 제안 -권정화(월드비전 활동가)
15:50-16:30	질의응답 및 토론

전시성폭력 여성들과 함께한 나비기금 10년 활동 돌아보기

| 김해슬(정의기억연대 활동가)

「전시성폭력 여성들과 함께한 나비기금 10년 활동 돌아보기」

2022.3.4. 김해슬(정의기억연대 활동가)

나비기금의 시작: 피해자와 피해자가 손 잡다

“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지만,
그래도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 서서 우리에게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라고 싸우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 각지에서
우리처럼 전시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김복동, 2012.3.8. 세계여성의날,
나비기금 설립 기자회견에서



정기지원

1. DR콩고: 2012년~
2. 베트남: 2013년~
3. 우간다: 2017년~2021년
4. 팔레스타인 여성 트라우마 힐링센터: 2021년~

일시지원

1. 미군 기지촌 피해 할머니들
2. 아시아지역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
-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등 워크숍 진행
3. IS 피해 야지디족 여성
- 길원옥 할머니 2017년 독일 교회의 날 캠페인
4.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피해여성

정기지원 1. DR콩고

지원내용

- 내전 성폭력 피해여성, 전쟁 고아
- 현지 단체: Masika Rebecca Katsuva, APDUD / REMED (Mama Ushirika)

주요활동

- 피해여성 재봉훈련, 글읽기 수업, 소득창출 활동
- 현지 성폭력, 여성인권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



2020 마마유시리카 재봉센터 재봉틀 전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2021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캠페인_마마유시리카 재봉센터 앞에서
김복동 할머니 기억하기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정기지원 2. 베트남

지원내용

- 미국-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성폭력 피해여성

주요 활동

- 피해여성 지원/증언조사
- 라이따이한 2,3세 지원
- 나비평화기행
- 위령제/추모비 후원
- 민간인 학살 피해 지역 자전거 지원



2019 베트남 나비평화기행 중
위령비에 추모하는 참가자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베트남 한국군성폭력 피해여성 증언 조사



2015년 3월 정대협과 만나 피해를 증언한 베트남 할머니들©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정기지원 3. 우간다

배경

- 신의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 내전 당시 성노예, 소녀병, 성폭력 피해여성, 자녀들
- 현지 단체: Wend Africa / Can Ruwede Peke / Golden Women Vision

주요 활동

- 생존여성 자생모임, 경제적 자립 지원, 글읽기 수업, 자녀 학비 지원
- 증언조사/다큐멘터리 제작



2019 웬드아프리카
좌)가방을 제작하는 생존여성들
우)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말씀 필지를 찬 생존자 Laker Lucy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2019 웬드아프리카 성인 글썩기 수업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좌) 2020 찬 르웨데 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존여성들을 위한 쌀 구입
우) 2019 찬 르웨데 페 생존여성들이 만든 비즈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좌) 2019 골든위민비전 김복동평화상 장학생들과의 만남
우) 2020 골든위민비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쿡 분배하는 활동가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2020년 다큐멘터리 <우간다에 새겨진 주홍글씨 그리고 김복동> 화면©뉴스타파

뉴스타파



성과

1.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여성인권운동가로
2. 피해자 사이의 초국가적 연대
3. '우연히 피한' 우리의 연대 -나비기금 후원회원
4. 피해자, 가해자로서의 한국 사회의 책임

과제

1. 일본 정부의 방해
2. 지속가능성
 - a. 코로나19
 - b. 지원 이후의 삶
3. 아시아연대
 - a.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지역
 - b. 계속되는 분쟁

앞으로

1. 아시아지역 분쟁하 성폭력 지원
2. 소통
 - 수혜단체, 지원대상-나비기금
 - 분쟁하 성폭력 피해지역-한국 사회

아시아 지역 전시 성폭력 현황과 과제, 제언

| 이유경(국제분쟁 전문기자)

아시아 지역 전시 성폭력 현황, 과제, 제언

발표 :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2022년 3월 4일 14:00 ~ 16:30

주최 :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나비기금 1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나비기금 10년, 세계 전시성폭력 피해자의 희망으로 다시 한 번 날다!

일시: 2022.3.4.(금) 오후 14:00~16:30
장소: 온라인 Zoom
주최: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신청링크: <https://bit.ly/ButterflyFund10> 또는 QR코드 스캔

사회: 한경희(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14:00-14:10 개회사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14:10-15:50 발표
전시성폭력 여성들과 함께한 나비기금 10년 활동 돌아보기
김해슬(정의기억연대 활동가)
아시아 지역 전시 성폭력 현황과 과제, 제언
이유경(국제분쟁 전문기자)
나비기금-아디 팔레스타인여성 트라우마 힐링센터 활동보고
이동화(아디 활동가)
나비기금-베트남 연대 방안 제언
권현우(한베평화재단 활동가)
나비기금-로힝야 연대 방안 제언
권정화(월드비전 활동가)

15:50-16:30 질의응답 및 토론

문의: info@womenandwar.net

정의기억연대

나비기금 10주년 기념
라운드 테이블

약어 (Acronyms)

- ICTR :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 ICTY :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전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 IPKF : Indian Peace Keeping Force 인도 평화유지군
- LTTE :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타밀타이거
- SGBV :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성폭력 및 젠더기반폭력

본 발표문은 전시(wartime) 혹은 분쟁 후 (post-conflict) 성폭력(성고문) 실태를 담고 있습니다. 발표 과정에서 불편한 묘사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요



'전시 성폭력'
발생

아시아
분쟁지역

- 1) 미얀마 소수민족 내전 및 '봄의 혁명 '
- 2) 카슈미르(인도령)
- 3) 스리랑카 내전
- 4)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1971)
- 5) 시리아-이라크 소수 '야지디' 사례

누가 가해자인가?

- 정부군

- 민병대

- 적대적 커뮤니티 혹은 그 커뮤니티 무장단체 (IS, 라카인)

- '평화유지군' (예 : 스리랑카 주둔 인도평화유지군 IPKF)

- 난민 캠프 주변 다양한 그룹 (예 : 방글라데시 로힝야 캠프)

누가 피해자인가

1) 분쟁지역 불특정 다수 민간인
(주로 소수 & 여성)

2) 반군 & 반군에 협력한 민간인

(남,여,미성년 : [스리랑카 분쟁 성폭력에서 두드러짐](#))

Facts & Truths (1)

국제전 보다는 내전 지역에서 발생
(분쟁 장기화, 증오/혐오가 분쟁의
동기라는 점 주요 변수)

군사작전 과정에서 발생

전쟁 방편이자 수단

분쟁 후(Post-
Conflict)에도
발생

분쟁 연장공간인
난민촌에서도
발생.

전시 성폭력 부인은 가해자 그룹에만 국한되지 않음
(예 : 아웅산 수치 등 NLD 인사들의 로힝야 학살 및
성폭력 피해 부인)

Facts & Truths (2)

- 성폭력 및 성고문 피해그룹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포함.
- 여성을 타깃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 적군 커뮤니티 전체 모욕 주기, 명예공격
- 반군 가족, 반군 연계 여성들 겨냥한 성폭력은 보편적 전쟁 수단이 됨.
- 가해자가 속한 국가기구와 제도들 '가해자 보호'와 성폭력 범죄 부인에 동원됨
- 성고문은 구금 및 심문 중 다른 형태의 고문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 흔함

2. 사례로 보는 분쟁과 성폭력

1. 미얀마

1) 소수민족 내전 지역에서 벌어지는 버마군에 의한 소수민족 여성 성폭력

- 산주 : <산여성 네트워크>(SWAN) 미얀마 최초로 전시 성폭력 보고서 발간 (2002)

- 카렌주 : 카렌여성기구(KWO) 전시 성폭력 보고서 발간 (2004)

- 라카인주 로힝야 : 2016~2017년 '청소 작전' 당시 극심. 타 소수민족 여성들의 피해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이유는 대로힝야 성폭력은 '전쟁범죄'를 넘어 '제노사이드 수단'이므로.

1) 강간 라이선스 Liscence to Rape (2002)

산주 여성네트워크(SWAN) 발간.
미얀마 최초의 '전시 성폭력' 보고서

보고서 전문 :

https://www.peacewomen.org/sites/default/files/vaw_licensetorape_shrf_swan_2002_0.pdf

'Liscence to Rape'
주요 내용
(Key Findings)

173건의 강간 및 성 폭력 사례 기록.

1996~2001년 사이 산주에서만 625명의 소녀들과 여성들이 버마 군에 강간 당함.

가해 군인들은 52개의 각기 다른 대대(battalions) 소속.

83% 강간은 장교들에 의해 자행. (주로 자기 부대원들 보는 앞에서)

강간은 구타나, 신체 상해/절단, 목 조르기 같은 고문행위 동반

25%의 강간은 죽음으로 이어져. 이 경우 일부는 시체를 마을에 전시

61%는 집단 강간

여성들은 군 부대 안에서 강간 당하고, 어떤 여성은 4개월에 한 번 강간이라는 주기성을 보여줌.

총 173건 중에 가해 군인 처벌 사례 딱 한 건

2) 침묵을 깨뜨리며 Shattering Silence (2004)

카렌 여성기구(KWO) 발간 전시 성폭력 보고서

보고서 전문 :

https://www.peacewomen.org/sites/default/files/kwo_shatteringsilences_april2007_0.pdf

• 주 내용(Key Findings) : Shattering Silence

(카렌여성기구 2000.10월 ~ 2004.3월 총 125개의 성폭력 사례 기록)

'포 컷' 전략 도입이래 강제이주 심각, 1985년까지 수백명 여성 강간, 살해당함

강간이 정치(전쟁)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

* 가해자 처벌 없는 완벽한 면죄부 환경(Climate of Impunity)

* 커뮤니티 내 '낙인 찍히기' (Stigmatisation by Community)

* 강제임신, 낙태 / 강제노동 수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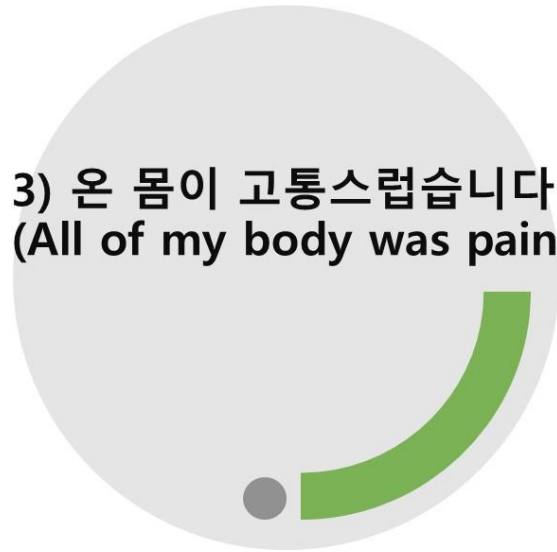
• 로힝야 제노사이드
(2016~2017) 과정에서 발생
한 전시 성폭력 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2017보고서

보고서 전문 :

[https://www.hrw.org/report/2017/11/16/
all-my-body-was-pain/sexual-violence-a
gainst-rohingya-women-and-girls-burm
a](https://www.hrw.org/report/2017/11/16/all-my-body-was-pain/sexual-violence-against-rohingya-women-and-girls-burma)

3) 온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All of my body was pain)



주요 내용
(Key Findings)
All of My Body
was
Pain (2017, HRW)

전시 강간 범죄 생존자 29명 포함, 로힝야 여성 52명 인터뷰

강간 피해자 이자 생존자 중 누구도 미얀마 안에서는 '강간
후 응급처치'를 받은 경우 없음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후 물리적 상처와, 생식기 상처, 하혈,
감염 등 강간의 후유증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음. 의료
접근권 제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심각

제노사이드와 성폭력

로힝야 전시 성폭력은
'제노사이드 수단으로서
성폭력'으로 볼 수 있음.

(전례 : 르완다 제노사이드와 성폭력)

사망 : 24,000명

불 속에 던져진 사람들 : 34,000 명

구타 당한 사람들 114,000 명

강간당한 여성들 18,000 명

보안군이 방화한 로힝야 가옥들 : 115,000 채

파괴된 가옥들 : 113,000 채

(source : Untold Experience : Forced Migration
of Rohingya, Ontario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2018.8 /

Full report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6912213_Forced_Migration_of_Rohingya_The_Untold_Experience

아웅산 수치가 2011년 (야당
지도자 시절) 미얀마 소수민족
지역에서 '강간'이 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현실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영상
(Nobel Women's
Initiative 2011)





Banner on the Facebook page of Myanmar's State Counsellor, Aung San Suu Kyi (2017.3) <https://www.bbc.com/news/magazine-39204086>

4) 분쟁영토 밖 &
분쟁 후 성폭력
(예 : 방글라데시 로HING야 캠프)



로힝야 난민 삼지따는 12살 동생과 함께 치타공에서 3개월간 가정부로 일하고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돌아온 난민캠프에서 '로컬 멤버' 그룹 (방글라데시 현지인들) 에게 집단 성폭행까지 당했다. 삼지따는 라카인주 마웅도로 되돌아갔지만 다시 오고 싶다고 한다.

기사원문 참고 :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7003.html

5) 미얀마 '봄의 혁명'

(2022.2.28 현재 4건 보고)

사례1 & 2)

2021. 11월 11일, 친 주 칼레 타운쉽 군부의 군사 작전과정에서 발생한 전시 성폭력 2건

- '피해여성 A'는 갓난 아기의 엄마. 미얀마 군인 3명이 가옥 침입. 남편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강간했다고 함.

- 강간당한 여성은 충격에 휩싸여 있으며, 원치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피임주사를 맞는다고 보도.

- 또 다른 피해 여성 B는 피해여성 A.의 시누 (혹은 올케)

- "아직 진상을 잘 모른다. 조사 중이며, 만일 강간이 벌어진 게 사실이라면 군법과 지방법(regional law)에 따라 처리하겠다.

(군부 대변인, 조 민 톤 소장)

관련 보도

<https://www.rfa.org/english/news/myanmar/rape-11162021200357.html>

사례3 : 산주 거주 62세 카친 여성 (2021.11.7 발생)

11월 7일 산부 북부
콧카이 타운쉽
파캇(Phakhat)
마을에서 발생.

군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사실은 인정. 가해자
처벌하겠다고 공언. 그러나
소식 없음.

보도에 따르면, 경보병 사단 336 군인들이 이
여성의 집으로 침입. 식량 탈취 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강간.

사례4.

전버마학생연합동맹(ABFSU), '구금 중인 학생운동가 성폭력 당했다' 보고
(여성 구금자 약 2천명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심문과정에서 성폭행 발생. - 협박 다른 형태 고문과 동반. 총구를 입안에 들이댐. (이하 상황 묘사)

Democracy activist Ein Soe May was imprisoned for almost six months - the first 10 days of which were spent in one of Myanmar's notorious interrogation centres, where she alleges she was sexually assaulted and tortured.

- Soe May said she was also repeatedly pressed for details of her sex life. One interrogator threatened: "Do you know what we do to the women that end up here? We rape and kill them."
- She was then sexually assaulted while blindfolded. "They pulled down the oversized top I was wearing, they touched me as they did it, exposing my body," she said.

Her blindfold was later removed, and she saw one of the guards take all but one of the bullets out of his revolver.



ALL BURMA FEDERATION OF STUDENT UNIONS

Statement On the Sexual Abuses Committed by The Junta-Troops Led by Min Aung Hlaing

Upon the Woman-Comrades

Date: 19th February, 2022

The woman-comrades from ABFSU has been fighting for eradicat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long before their coup was staged. At the present of this Spring Revolution, the woman-comrades and woman-activists are still fighting magnificently along with the men to eradicate the military dictatorship.

It has been learned that one detained woman-comrade, the member of ABFSU, captured by the junta-troops, has been tortured, abused sexually during the custody of interrogation by the Junta -troops, and currently has she been locked up behind the bars in isolation. She has also been denied to receive any medical treatment. We have heard that other woman-comrades and activists detained nationwide have suffered much the same.

We have learned that the sexual harassments have been suffered not only by the woman-comrades but also by the men and even the boys during their custody in Junta-interrogation centers. We have stated a case of sexual abuse upon the detained male political prisoners: the atrocities such as forcibly injecting bamboo poles into the victims' anuses. The Junta's persecutions and oppressions leave us no words to descri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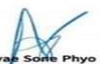
We, the ABFSU, urge all the interna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the revolutionary civil organizations to speak out; condemn to those sexual harassments and tortures; and demand the proper medical treatment for those injured and tortured.

We, the ABFSU comrades, have been firmly committing ourselves to all absolute sacrifices since we started fighting against all forms of oppression as well as the Military Dictatorship. Accordingly, never shall our unwavering efforts in this revolution get relucted even for a second by all means of cruelties of the Military Junta.

We may bleed, get tortured into pieces.

But we are unbowed.

The Military Dictatorship must fall.


Aung Pyae Sone Phyo
Chairperson
ABFSU

카슈미르 (인도령)

쿠난 포슈포라 집단 강간사건

- 카슈미르는 두 핵강국이 대치하는 공간이자 인도령 카슈미르 영토내 '내전 성격'으로 분쟁이 전개 중인 '[저강도 분쟁 지역](#)' (low intensity conflict)
- 매년 2월 23일은 "카슈미르 여성 저항의 날"(Kashmiri Women's Resistance Day).
그 배경은 1991년 발생한 집단 강간 사건을 기억하고 저항하자는 의미.
- [쿠난 포슈포라 \(Kunan Poshpora\)](#) : 1991년 2월 23일 인도군이 쿠파라 지역 (파키스탄과 국경라인 LOC와 인접한 지역) 마을 급습. '임시 심문소'(ad-hoc interrogation center)가 마을 헛간 같은 장소에 세워졌고, 마을 남성들은 그 임시 심문소로 죄다 불러나왔다. 그리고는 남겨진 여성 주민들에 대한 인도군의 강간이 벌어졌다. (30명 이상의 여성을 집단 강간하고 일부는 살해. 일부는 생존.)
- 사건 기록해온 활동가들에 따르면 당시 인도군은 반군 혹은 무기 색출을 위한 심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여성들은 거의 모두 집단 강간당했고, 남성들은 밤새 고문당했다"

쿠난 & 포슈포라 집단 강간사건 일지

- 1991.2.23 : 인도군, (파키스탄과의 국경선인) 통제선(LoC) 인근 쿠파라 지구 '쿠난 & 포슈포라' 마을로 반군 색출을 이유로 대대적 침입 & 수색. 남성 주민들을 모두 내보낸 뒤 남아 있는 여성 주민들 집단 강간
- 1991.10 : 경찰, 사건 종결
- 2004년 : 생존자들, <잠무 카슈미르주 인권위>에 진정
- 2011년 <잠무 카슈미르주 인권위>, 최소 40명 피해자에 대해 보상하라 권고. 권고사항 지켜지지 않음.

- 2013.10월 : '쿠난 포슈포라의 정의지원 그룹'(Support Group for Justice for Kunan Poshpora, SGKP) 인도 고등 법원에 '공익 소송'(PIL) 제기.

=> 2012년 델리에서 발생한 집단 강간 사건인 이른 바 'Nirbhaya Gang Rape' 사건을 계기로 진상규명 의지 다졌다고 배경 밝혀.

“인도 당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 폭로”

“피해자들이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외부로 발설하고 공개화하길 원하기 때문에 소송을 거는 건 중요하다 ” 고 말함.

“The people of Kunan Poshpora chose to fight, knowing that justice may just be a dream.” (소송 주도한 활동가 나타샤 라더의 말)

- 인도고등법원 소송 반력. 이어 <잠무 카슈미르 법원>은 이 사건 종결 보고

- 2014. 12월 : 생존자들 고등법원에 다시 진정. 고등법원 군에 보상과 조사 명령. <잠무 & 카슈미르> 주정부 고등 법원 명령 불복.

- 2016년 : 인도정부, 고등법원 명령 법치성에 의문 제기하며 대법원에 진정. AFSPA 거론*

**AFSPA : Armed Forces Special Power's Act, 보안군 특별권한법. 사실상 "disturbed area"에 주둔한 보안군의 모든 범죄에 면죄부 주는 법*

- 피해여성 다수가 무장단체 대원들 가족이거나 연계된 인물들

- 2020.2월 : 쿠난 포슈포라 집단 강간 사건 발생 후 19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쿠난 포슈포라 피해자들의 남성 가족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표명. (전년도 카슈미르 자치권 상실과 그에 따른 절망적 상황이 영향을 준것으로 보임)

카슈미르 분쟁 성폭력 더 없었나?

집단 강간 사례 더 있지만 피해자들이 사건을 알리길 원하는 쿠난 포슈포라 경우 외에는 외화 되지 않고 있음.

남성들에 대한 성고문도 보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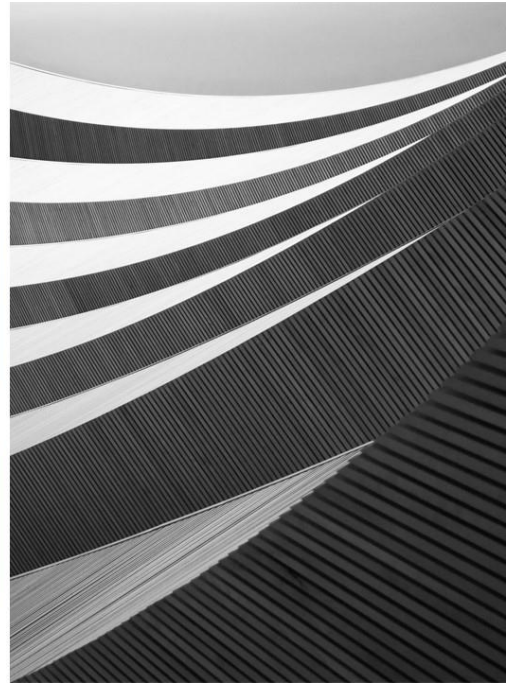
- The authors of *Do You Remember Kunan Poshpora?*, the reason for continuing their struggle for justice is to keep the memory of the incident alive. While justice has been denied again and again, for the survivors **"remembrance is important for resistance"** so that their voice cannot be repressed again by the State as has been done so far.

"저항하는데 있어
기억은 중요합니다 "

쿠난 & 포슈포라 집단 강간 사건 에 대한 인도 사회의 반응

공익소송(PIL) 제기하기 전, 군과 인도 정부는
집단강간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음.

<힌두스탄 타임즈>, <인디안 익스프레스> 기자 출신 BG
Vergheese는 '위기와 신뢰'(Crisis and Credibility)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집단강간이 "무장단체의 가짜 클레임",
'피해여성들은 무장단체 명령따라 행동'이라고 말함 (카슈미르
분쟁에 대한 인도 주류사회의 인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



스리랑카

스리랑카

전시 성폭력 '교과서'

만연,
매우 체계적, 정책적
성고문 동반 두드러져

- 남녀 모두에 대한 전시 성폭력 발생으로 악명 높은 분쟁 지역
- 2006년 휴전이 파기된 후 성폭력 더욱 증가
-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성폭력 계속 'post-conflict sexual violence'
- '고문의 형태'로서의 성폭력
- 성고문이 두드러진 분쟁지역 -
(HRW, 2013.2월 보고서 : We will teach you a lesson 참고)
- 반군(LTTE)에 의한 성폭력은 기록을 찾기 어려움. ('성폭력에 사형'이라는 엄격한 내규 때문으로 풀이됨)

통계로 보는 스리랑카 전시 성폭력 현황

스리랑카 내전
기간(1983~2009) 전체
인구의 13.4% 성폭력
피해.

직접적 질문을 던졌을
때의 1.4% 대비 '열거식
실험조사'로 나온 열배
높은 수치

2) 무장반군에 협조한 타밀인구 52%가 성폭력 경험

- 무장반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1%
- 정부군이나 친정부군에 협조한 비타밀계는 20% &
- 타밀 반군 LTTE에 협력한 이들을 겨냥한 전략적, 체계적 전쟁 수단

3) 남녀 모두 성폭력 피해자

(성별 뛰어넘는 현상이 가장 강한 분쟁 지역)

- 일반적 피해자 성별 비율은 남성 12%, 여성 14%
- 그러나 피난인구 중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31%로 여성 10%보다 높음

=> 전장터를 피신한 남성으로서 LTTE와 연계된 남성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공격하는 경향 보여줌.

(참고) '열거식 실험조사'

- 앞서 언급한 수치를 도출해 낸 '열거식 실험조사'(List Experiment)는 민감한 사회문제에 대한 솔직한 답변 또는 내면화된 가치 알아보기에 유용. 성폭력 당한 경험을 직접 묻기 보다는 보기를 열거하고 몇 개의 항목에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방식.

Q. 'how many—not which—of these they experienced during the war'

The list experiment was embedded in a broader face-to-face survey of Sri Lankans across the country in 2016 (1,800 respondents total) that also asked direct questions about whether individuals experienced or witnessed sexual assault. Additionally, the survey gathered respondents' demographic information, along with information on whether respondents had been displaced or had assisted and/or participated in the military or other armed group during the war.

(*출처 : Traunmüller, R., Kijewski, S., & Freitag, M. (2019). The silent victims of sexual violence during war: Evidence from a list experiment in Sri Lank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https://peacesciencedigest.org/uncovering-the-extent-and-nature-of-sexual-violence-in-wartime-sri-lanka/>

구금인 타밀
남성 20% 성
고문에 노출

2000년 영국의학저널 Lancet를
통해 처음 알려짐

1997~1998 년 구금 경험한 타밀
남성 184명 대상으로 조사. 이중
20%가 성고문당한 것으로 드러나.

- 타밀 민병대, 전 반군출신 이용
- 정부군 여성 장교, 동료 남성군인들의 성폭
력 및 성고문에 협력 혹은 동참
- 한 사건에 두 명 이상의 가해자 동참 : 성폭
력/성고문이 체계적, 정책적으로 자행된다는
의미

- 심문을 이유로 반군 가족 연행 후 성폭력만 하는 경우도

예 : 2008년, 북부 와우니아 지역에서 타밀 타이거 반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의 17세 아들 심문소로 끌려간 뒤 성폭력 당한 사례.

- 전쟁 후 제3국에 피신 했다가 다시 스리랑카로 추방된 난민신청자들, 공항에서부터 연행되어 심문시설내 구금 그리고 강간 및 성고문 당한 사례 지속 보고

예 : 2010년 1월 46세 타밀 남성 공항에서 '범죄수사국 4층(CID 4층)으로 끌려간 후 '와우니아 조셉 캠프'로 이송. 강간 등 고문

스리랑카에서는

- 'CID 4층' (보통 "4th floor"라고 말함)이 고문실로 통하고

- "와우니아 캠프"는 특히 성고문 사례에 자주 등장한다.

이 같은 국가폭력과 범죄가 고립되거나 우연한 사례가 아니라 모두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방증.

강간 후 살해 극도의 잔혹함

- 1997년 3월 17일, 동부 바띠칼로아 지역에서 타밀 여성 무루게수필라이 코네스와리 (Murugesupillai Koneswary) 가옥에 무단 침입한 경찰은 코네스와리를 강간한 후 그의 성기에 수류탄을 터트려서 살해함. 아무도 처벌받지 않음.

아사이 프리야(Asaipriya, 27)
반군(LTTE) 운영 '올리비쥬'
(Oliveechchu) TV앵커

전쟁 막바지 비무장 상태에서
처형(전쟁범죄). 처형 당하기
전 강간당한 것으로 강력 추
정.

관련 기사 :

<https://www.channel4.com/news/sri-lanka-war-crimes-video-womans-body-identified>

<https://www.channel4.com/news/sri-lanka-execution-video-new-war-crimes-claims>



아사이 프
리야
(Asaipriya,
27) 친구
증언

"She never carried a gun and her physical condition did not permit her to go to the battlefield. She always had either a camera, a pen or a notepad."

"그는 단한 번도 총을 든 적이 없다. 건강상의 이유로 전장으로 차출되지도 않았다. 늘 카메라나 펜, 아니면 노트패드(취재수첩)를 들고 다니던 그다"

반군 대원이라 하더라도 비무장 상태라면 고문, 처형하는 건 전쟁범죄.

- 전쟁 막바지였던 2009년 상반기 유엔 직원 (field officer)이었던 Peter McKay는 전투지역(북부)을 빠져나와 정부군쪽으로 넘어온 여성 다수가 정부군 캠프에서 성폭력 범죄의 만연함에 시달린 뒤 다시 전투지역으로 피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 (HRW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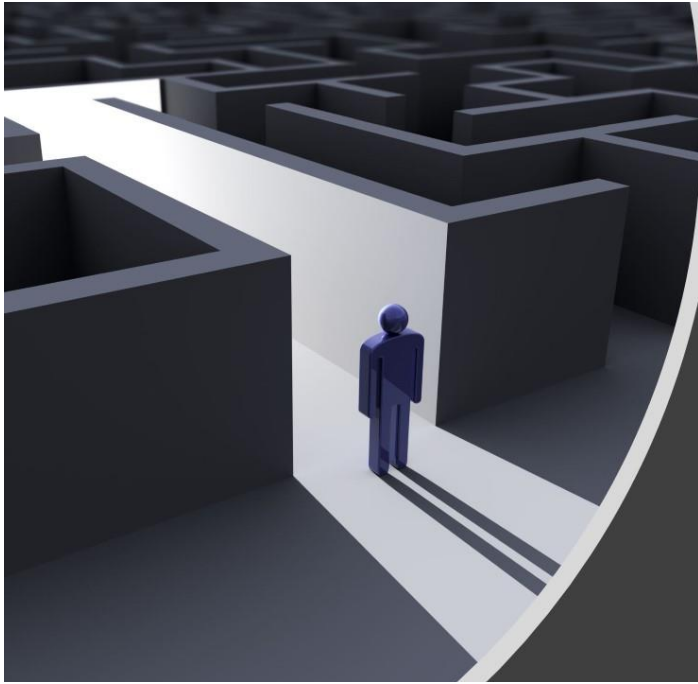
- 스리랑카의 전시 성폭력 범죄는 비단 타밀족과의 내전에서만 벌어진 건 아니다.

극좌정당으로 2차례 무장반란을 일으켰던 '인민해방전선'(JVP) 대원들 역시 국가가폭력으로서의 성폭력 범죄에 피해자들이다.

스리랑카 전시 성폭력 처벌 사례

1) 1996년 9월 18세 타밀 여성 크리스란티 쿠마라스와미(Krishanthi Kumaraswamy)가 자프나 검문소에서 강간 당한 후 살해된 사건. 크리스란티를 찾으러 나선 그의 엄마, 오빠, 이웃들도 모두 살해당함. 6명의 사병들 고등법원에서 기소됐고, 대법원이 유죄확정판결. 이 재판 과정에서 자프나에 산재한 여러 대량 무덤들 발견. 몇 년 후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2) 2008년 동부 지방 '경찰특전사'(STF)들에 의한 성폭력 사례에 대해 마을 주민들 대대적으로 반발. 해당 가해자 면직. (매우 예외적인 사례)



4. 전시 성폭력 처벌과 국제법

**국제형사재판소
에 관한 로마규
정(Rome
Statute of the
ICC)**은 전시 성
폭력을 '전쟁범
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법.

- 1) 국제형사법원의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전쟁범죄로 규정한 성폭력 유형 :

강간, 성노예,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화, 기타 성폭력 등은 모두 전쟁 범죄

- 2) '전시 강간'에 대한 로마규정 정의

rape is a form of sexual violence during which the body of a person is invaded, resulting in penetration, however slight, of any part of the body of the victim, with a sexual organ, or of the anal or genital opening of the victim with any object or other part of the body."

국제사회의 '전시 성폭력 범죄화' 노력

1907년 <헤이그 협약> : 성폭력 금지(불법화)가 시작.

가장 최근 노력은 2014년 6월 : 제 68차 유엔총회에서 122개 국가 '분쟁지역 성폭력 근절노력 선언' 채택

- "Declaration of Commitment to End Sexual Violence in Conflict -

전시 성폭력 기소 국제재 판

1) 1998년,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장 폴 아카예쥬(Jean Paul Akayesu) 기소를 통해 **강간이 제노사이드의 한 방편이었다** 인정.

2) 전유고슬라비아전범재판소(ICTY) (2011.4월 기준) 93명 기소 중 44명이 전시 성폭력과 연계로 유죄 확정. 이중 29명이 성폭력 가해자로 유죄판결. 결과적으로 **유죄의 69%가 전시 성폭력** 사례
<https://www.icty.org/en/features/crimes-sexual-violence>

3) 방글라데시 독립전쟁(1971) 당시 '전시 강간' 포함 전범 처벌.

'전시 강간' 포함 전범처벌 방글라데시 사례

- 2008년, <전쟁범죄 진상규명 위원회>가 17년간의 조사 끝에 1,597명 가해자로 지목.
- 2010년,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국제범죄재판소(ICT) 개설 (국제법정 성격 미달)
- 1971년 독립전쟁 당시 친파키스탄 민병대로 활동했던 인물로 종교정당인 '자마 떼 이슬라미' 지도자 압둘 카데르 몰라 강간 포함 유죄. 2013년 사형. 또 다른 인물 모티우르 라흐만 리자미, 강간 포함 전범 유죄로 2016년 사형 등 총 5명 사형.

르완다 제노사이드
국제 재판은 '집단
강간'을
전쟁범죄로 처벌한
최초 사례.



The ICTY and crimes of sexual violence

The ICTY
and Crimes
of Sexual Violence

방글라데시 자마떼
이슬라미 당 지도자이자
1971년 독립전쟁 당시
친파키스탄 민병대
활동했던 모티우르
라흐만 니자미(Motiur
Rahman Nizami, 2016년
5월 사형



결론

전시 성폭력 심각한 분쟁지역일 수록 여성들의 무장단체 참여, 무장저항 공감 정도가 높다. (특히 스리랑카, 현 미얀마 유사흐름, 시리아-이라크 IS 성노예 피해자 야지디 커뮤니티 등)

가족 명예 우선, 피해자 사회적 고립 낙인찍기(stigma) 여전한 도전 - 모든 사례.

국가기구와 독립기구들 (법원, 공권력, 미디어까지)이 담합하여 범죄 부인하는 양상도 전시 성폭력 해결에 방해 - 인도형 카슈미르 대표적

아시아 '전시 성폭력'은 국제재판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음. 유일한 처벌 사례로 볼 만한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전범 (전시 강간 포함)사례는 피고 변호 보장 논란과 정치적 논쟁으로 퇴색됨 (인권단체의 딜레마가 있었음)

과제 및 제언

피해자와 연대, 피해자 재활,
법정투쟁은 물론 중요.

그러나 가해자 밝히기를 통해 '가해자
명예'에 종신형 선고, '가해자
낙인찍기'도 중요.

기록과 공유, 공감과
행동 - 책임자 처벌
캠페인 - 지속

분쟁 종식



끝.

감사합니다.

나비기금-아디 팔레스타인여성 트라우마 힐링센터 활동보고

| 이동화(아디 활동가)

아디, 팔레스타인여성 트라우마 힐링센터 활동보고

정의기억연대, 라운드 테이블
<나비기금 10년, 세계 전시성폭력 피해자의 희망으로
다시 한번 날다!>

2022년 3월 4일

이동화 팀장



아시아 현장을 만납니다.

아디 ADAM ADVOCACY CENTER

1. 사업 배경- 왜 팔레스타인 여성인가?
2. 사업개요
3. 사업결과-트라우마 힐링센터 기반 조성
4. 사업결과-심리사회적 지원
5. 사업결과-법률상담
6. 사업결과-긴급재정지원
7. 사업평가-현지의견
8. 사업평가-아디의 의견 및 고민

1. 사업 배경- 왜 팔레스타인 여성인가?

1.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한 전반적 인권탄압
2. GBV(Gender Based Violence, 젠더기반폭력)와 ORV(Occupation Related Violence, 점령기반폭력)의 교차점에 놓인 팔레스타인 여성
3. 팔레스타인 사회적 맥락 속 여성의 취약성
4. 코로나 19로 인해 가중된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고통



2. 사업 개요



팔레스타인여성 트라우마 힐링센터 사업	
사업기간	2021.5.~2023.12.(2년 8개월)
사업지역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나블루스
대상자	GBV와 ORV 피해생존 여성 50명+지역여성 100명
사업목적	GBV와 ORV 생존여성들에게 필요한 인권보호 프로그램 제공 및 보호망 구축
주요활동	1. 트라우마 힐링센터 기반 조성 2. 심리사회적 지원(심리치료, 트라우마 힐링 기초교육) 3. 법률 상담 4. 긴급재정 지원
사업비	\$26000(한화 3천만원)
현지파트너	탄위르

3. 사업결과- 트라우마 힐링센터 기반 조성



1. 조직구성

- 프로젝트 매니저: 파트너기관 상임활동가 와엘, 실무진 구성
- 운영위원회 구축: 전반적 센터 운영 가이드 역할, 긴급재정지원 관련 기준마련, 신청서 심의 및 결정 역할, 총 6명(교수, 변호사, 간호사, 외과의사, 토목공학자, 약사) 월 1회 정기모임
- 전문심리상담사 채용: 사마 메나위, 심리상담과 치료사로 15년 동안 근무
- 법률상담사 채용: 누르 샤라까, 변호사, 형법 전공

2. 지역내 네트워크 구성

- 목적: 센터활동 소개 및 홍보, 네트워킹, 워크숍 공동주최 의견교환,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내담자 이송위한 시스템 구축
- 지역 민간단체, 의료단체, 지방정부, 구호단체, 아동단체 등 총 22개 단체 28차례 미팅

3. 사업결과- 트라우마 힐링센터 기반 조성

아디
ADAM
ANAN
JAH
UNIVERSITY



센터 실무진+전문가+운영위원회



지역모자보건단체(Child and Mother Care Association)과의 네트워킹



안나자 국립대학(An-Najah Uni.) 리걸클리닉 방문



Democracy and Conflict Resolution Center 방문

3. 사업결과 - 심리사회적 지원

아디
ADAM
ANAN
JAH
UNIVERSITY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기간: 2021.6.~11.(6개월), 12월은 기존 상담 및 치료에 집중
- 방법: 전화상담 및 워크숍 참여 이후 센터 내방
- 총 29건, 주요상담 사유는 가정폭력, 부부갈등(양육관련 포함), 성폭행, 자녀의 사고사 등에 의한 트라우마
- 대응: 내담자의 정서적 환기(Emotional Ventilation)후 인지행동치료, 긴급재정지원 소개, 상급 상담소 및 병원 소개 등

2. 트라우마 힐링 기초교육 워크숍

- 지역내 이스라엘 관할지역(B/C지역) 마을, 난민캠프에 직접 방문하여 여성조직과 마을공동체와 함께 트라우마 힐링 기초교육 및 법률교육 워크숍 진행
- 4개 조직(뉴아스카르 난민캠프, 의료구호협회, 발라타 난민캠프, 지역재건위원회)호스팅, 총 140명 여성과 여성 청소년 참석

3. 사업결과 - 심리사회적 지원

아디
ADAM
ASIAN
DIVERSITY
INSTITUTE



센터 심리상담치료 모습-내담자 촬영동의

트라우마 힐링 기초교육 워크숍



3. 사업결과- 법률상담

아디
ADAM
ASIAN
DIVERSITY
INSTITUTE

1. 기간: 2021.9.~12.(7개월)
2. 방법
 - 트라우마 힐링 기초교육 워크숍 참석자들 현장 법률상담 및 문의
 - 네트워킹 단체에서 사례전달
 - 주변지인의 추천을 통해 전화상담 및 사무실 내방
 - 심리상담 과정에서 법률상담 요청
3. 결과
 - 총 58명에게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수행
 - 상담자는 기혼여성이 가장 많고 GBV 사건이 대부분, 빈곤과 실업 등과 같이 ORV가 연관된 구조적 환경의 영향이 큼
 - 상담사유: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양육권, 유산, 사이버협박, 허위사실 유포, 해킹, 결혼 지참금과 양육비, 손해배상 청구 등
 - 결과: 소송절차 소개, 소송을 위한 전문 변호사 소개, 소송진행



법률 상담 모습

- 긴급재정지원 선정기준(일부 발췌)
 - 신청자는 육체적, 정신적, 혹은 성적 폭력의 피해자 이거나 ORV에 의해 권리가 착취당하거나 빼앗긴 상황이다.
 - 신청자는 심리상담 치료사, 법률 상담사 또는 다른 기관의 전문가와 상담 이력이 있다.
 - 신청자는 무직이며 가족중 생계비를 버는 가장또한 없다.
 - 신청자의 부양자녀는 18세 이하이다.
- 절차: 서면신청서(아랍어/영어) 제출->운영위원회 회의->신청서 및 상담가 의견 제출->승인여부 결정->결과 통보
- 총 42건 신청, 22건 지원결정, 총 지원금 \$11000(건당 \$500 지원)
- 주요 선정사례: 가자지구 이스라엘 폭격피해여성, 가정폭력 치료비 및 생계비, 가정내 중증질환자 약값 및 생계비, **싱글 맘 생계마련을 위한 창업지원금 등**

4. 사업 평가-현지 의견

아디
Asian Development Institute

“올해 센터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에게 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네트워킹한 것입니다. 그중 법률상담사로서의 의미가 가장 컸던 건 안-나자 국립대학교의 리걸클리닉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법정 소송비용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누르(변호사, 법률상담)

“지역의 Mother's School Society와 Psychological and Legal Support and Counseling Unit와 강한 네트워킹을 통해 상담이후 사례들에게 추후 심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마(심리치료사, 심리상담)

“난민캠프와 연대단체와 함께 젊은 세대들에게 폭력과 여성권리를 소개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워크숍을 개최한 것 역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GBV와 ORV 피해여성들에게 긴급한 상황을 벗어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긴급재정지원사업 역시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에스마트(운영위원회 위원장, 긴급재정지원 담당)

4. 사업 평가 - 아디 의견 및 고민

아디
Asian Development Institute

아시아 분쟁지역 피해 생존자와 현지 활동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활동 - 아디 창립 목적

7개월의 활동, GBV+ORV 피해여성들에게 필요한 인권보호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치료, 법률상담, 긴급재정지원) 수행

남성이나 정치적 이슈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단체,
외국단체 활동에 대한 경계와 거부감 감지

현지의 자발성 유지하고 수동화 방지 고민, 피해여성의 인권보호와 지역의 여성
보호망 구축 목적달성을 위한 프로그램별 지표개발, 향후 자립화 계획 필요

“지금 세계 각지에서 우리처럼 전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
울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나비기금 설립 기자회견

나비기금-베트남 연대 방안 제안

| 권현우(한베평화재단 활동가)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전시성폭력, 그리고 나비기금의 가능성

나비기금 1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한베평화재단 권현우 활동가

T. 02-2295-2016
E. kovietpeace@gmail.com
H. www.kovietpeace@gmail.com



이야기 순서

1. 젠더의 눈으로 본 하미학살 사건
2. 베트남전쟁과 전시성폭력의 조건과 유형들
3. 베트남전 한국군 전시성폭력에 대한 오해
4. 나비기금이 베트남에서 겪는 어려움
5. 나비기금-베트남 연대 방안 제안

1 젠더의 눈으로 본 하미 학살 사건

1) 하미 학살 사건이란?

• 대표적인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사건: 1968년 2월 24일 한국군 청룡부대에 주민 135명이 4개 장소에서 집단희생. 다음날 한국군이 불도저로 피해 현장을 밀어 시신 훼손.

• 참전단체의 위령비 건립 지원과 비문 사건: 2001년 한국의 참전군인단체 지원으로 위령비 건립. 한국 측이 학살 피해 정황을 기록한 비문의 수정, 삭제를 요구하여 마을과 갈등, 비문이 연꽃 그림에 봉인.



하미학살 위령비 © 이재갑



연꽃 그림으로 덮인 위령비 비문 © 이재갑

1 젠더의 눈으로 본 하미학살 사건

1) 하미학살 사건이란?

- **청룡부대 기지 인근에 위치했던 하미 마을**
- 사건 1개월 전 청룡부대는 광남성으로 주둔지를 이전. 구정대공세 이후(1968.1.30) 전세가 급변하여 강도 높은 군사 작전(괴룡 1호 작전)이 추진되고 하미 일대에서 전투가 지속.
- **하미 주민들의 재정착을 도왔던 한국군**
- 전략촌과 난민촌에 있었던 하미 마을 주민들이 사건 1개월 전 하미로 돌아옴. 당시 한국군은 주민들에게 식량과 건축 자재를 지원하여 재정착을 지원.
- **주민들은 끝내 이유를 알지 못한 학살 사건**
피해 장소에 끌려가면서도 학살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희생자들. 자신들을 도운 한국군과 학살을 저지른 한국군이 다른 부대일 것이라 믿기도.

1 젠더의 눈으로 본 하미학살 사건

2) 젠더의 눈으로 다시 읽는 하미학살 사건

• 팜티호아 강간 미수 사건

- 하미학살 피해자 팜티호아(당시 40세). 마을에서 한국군과 접촉이 빈번하자 강간 피해를 우려, 평소에 자주 씹던 찌우까우의 색소를 몸에 바르고 다녔음.
- 한국군이 어느 날(학살 사건 이전) 총을 들이대고 팜티호아와 사촌의 옷을 벗김. 몸을 본 군인들은 두 사람이 피부병에 걸린 것으로 여기고 손을 댄 후 구타.



하미학살 피해자 고 팜티호아 © 이재갑



팜티호아의 유품, 찌우까우 절구통 © KVPF

1 젠더의 눈으로 본 하미학살 사건

• 하미학살-전시성폭력 피해자 응오티까이

- 팜티호아의 올케, 유가족 응우옌반땀의 아내 응오티까이(당시 24세). 당시 만삭이었던 그는 팜티호아, 주민들과 함께 응우옌빈 할아버지의 집에 소개되었고, 강간을 당한 후 죽임을 당함. 딸(3세)도 학살로 희생.
- 한국군이 마을을 떠난 뒤 남편 응우옌반땀이 피해 현장으로 돌아와 팜티호아에게 아내의 강간-학살 피해 정황을 들음.



응오티까이의 남편 응우옌반땀 © KVPF



희생자 응오티까이와 두 아이를 위한 영정 © KVPF

1 젠더의 눈으로 본 하미학살 사건

• 하미학살 희생자 연령, 성별 분포

- 전체 희생자 135명 중 여성 희생자 100명(74%)
- 10세 이하 어린이, 영유아 희생자 58명(43%)
- 남성 35명 중 21~60세는 불과 5명
- 1968년 구정대공세, 피난과 정착의 과정에서 마을의 생존을 책임졌던 여성들과 그들이 부양한 가족이 몰살.

(단위: 명)

	남성	여성	기타	합계
0세~10세	21	35	2 ¹⁾	58
11세~20세	3	10		13
21세~30세	1	10		11
31세~40세	0	11		11
41세~50세	0	13		13
51세~60세	4	12		16
61세 이상	4	9		13
합계	33	100	2	135

1 젠더의 눈으로 본 하미학살 사건

• 한베평화재단이 소장한 베트남의 한국군 학살 피해 관련 자료에서 파악되는 전시성폭력 피해 현황

- 전시성폭력 피해자의 숫자와 이름이 확인된 희생자
 - 총 19개 사건, 79명(이름 확인 희생자 11명)
- 전시성폭력이 언급된 사건
 - 총 27개 사건



한국군 학살 피해 관련 베트남 당위원회 자료 © KVPF



베트남의 한국군 학살 피해 자료집 © KVPF

2 베트남전쟁과 전시성폭력의 조건과 유형들

- 군인과 민간인의 접촉이 많았던 전쟁
 - 촌락에서의 전쟁. 빈번했던 마을 수색 작전, 게릴라 소탕 작전, 평정 작전 등으로 군인과 민간인의 접촉, 충돌이 매우 빈번.
- 마을을 지켰던 다수의 여성들
 - 남성들은 군인으로 전쟁을 수행, 장기간의 전쟁 속에서 마을에 남은 여성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 군대가 마을을 수색하면 성인 남성들은 도망치고 여성, 아이, 노인들만 집과 재산을 지키려 마을에 남아 군인들과 대면하는 상황의 반복.



호치민시 전쟁증적박물관에 전시 중인 밀라이학살 여성 희생자 사진 © KVPF

2 베트남전쟁과 전시성폭력의 조건과 유형들

• 베트남전쟁의 특이성이 여성들의 피해에 작용

- 적과 아군의 구분이 어려웠던 전쟁. 군인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베트남 여성들과 접촉, 충돌. 여성들을 죽이거나 함부로 다뤄도 무방한 '적(베트콩)'으로 간주하고 폭력/성폭력을 행사. 군인들의 심리적 공포와 분노가 여성에게 폭발.

• 마을이 군대에 완벽히 장악된 상황

- 주민들을 집에서 끌어내 특정 장소로 집결시켜 수색, 심문하지만 성인의 대부분은 여성. 적군은 이미 퇴각했거나 자취를 감춘 상황. 적군의 공격을 경계할 필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전시강간.

• 전쟁을 살았던 다양한 베트남 여성들

-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어머니, 아내, 누나의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북베트남군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참여, 전략촌 정책 및 평정작전에 저항하는 등 다양한 여성 존재. 이들에 대한 다양한 성격의 전시성폭력 발생.

• 사례: 한국군 민간인 학살 추도시설 중 여성에 대한 피해를 형상화한 것들



빈안학살 위령제단 뒤편, 학살 피해 관련 벽화,
학살 피해 및 전시성폭력 피해를 묘사 © 이재갑



빈딘성 김따이 마을, 한국군 학살 피해 증오탑, 인민위원회 맞은 편 © 이재갑



꽝응아이성 빈호아 마을 한국군 증오비, 죽은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여성의 부조(오른편) ©이재갑



빈딘성 노름학살 위령비에 부조로 표현된 학살 피해 여성과 주민 © 이재갑

2 베트남전쟁과 전시성폭력의 조건과 유형들

• 민간인학살 이외 다양한 시공간에서 벌어진 한국군 전시성폭력

할머니의 어떤 기억

f t d o s k



지난 8월 나베기를 지킴을 위해 빈딘성을 방문한 정대협(한국전쟁신대응재단대표이사) 조사원과 할머니 자신의 성폭력 피해 상황을 증언한 베트남 할머니들.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수경(타이), 최민희(호주), 임희진(미국), 임희진(미국), 유수경(타이), 최민희(호주), 임희진(미국), 임희진(미국) 할머니들.

[도요현] 카버스토리 / 베트남전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

‘위안부’ 피해자들이 연대의 손 내민
베트남전 성폭력 피해자들 첫 증언

한겨레 기사 ‘할머니의 어떤 기억’ © 기사 화면 캡처

- 베트남전 한국군 전시성폭력 피해자 관련 한겨레 보도(2015.4.24.)
- 정대협의 현지 방문 피해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피해 사례 소개
- 이 기사 외에 대중이 접할 수 있는 피해 사례는 전무한 상황

2 베트남전쟁과 전시성폭력의 조건과 유형들

• 나비기금 피해자 증언과 민간인학살 피해자 증언(혹은 자료)을 통해 파악되는 한국군 전시성폭력 유형

- 한국군 기지

마을 수색 과정에서 체포되어 한국군 기지로 끌려와 막사, 참호, 목욕탕 등에서 피해. 한국군 부대에서 잡부로 일하던 도중 피해.

- 작전 수행 중 마을

수색, 소탕 작전 중 한국군과 마주쳐 피해, 주민 집단 소개 과정에서 별도의 장소로 끌려가 피해.

- 민간인 학살 중 피해

한국군이 마을로 들어와 주민들을 소개하고 집단학살. 여성 피해자에게는 강간 및 특정 신체 부위에 잔혹 행위.

• 사례: 전투 이후 보복 과정에서 벌어진 전시성폭력

- 1967년 3월 30일(양력), 푸옌성 가인다-붕버우학살로 주민 13명 희생, 주민 4명 부상. 사건 장소(방공호)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성 2명 강간 피해.

- 한국군 오작교 작전 중 벌어진 사건. 전날 피해를 입은 한국군이 마을로 들어와 보복성 학살과 전시강간을 저지름.

- 하티똥(17세)은 강간 피해 후 사망, 도티응언은 강간 피해 후 생존했으나 현재 사망.

출처: 프억동촌 가인다-붕버우학살 유적 자료집, 도티응언 유가족 팜티투언(올케, 현 92세) 증언 등



피해 장소인 방공호 위치를 가리키는 주민 © 이재갑



2017년 건립된 피해자 집단묘지 © KVPF

• 사례: 여성에 대한 잔혹행위

- 한국군의 주요 학살 피해 사건들 중 여성 희생자 비율이 높음.
- 여성에게 가해진 고문, 잔혹행위, 연령대를 가리지 않은 피해



퐁니 퐁녇 학살 희생자 응우옌티탄(당시 20세)
© 미감찰부 미군조사보고서



희생자 응우옌티탄의 아버지, 2019년 청원인
응우옌전(96세) © 고경태

• 사례: 푸옌성 봉따우 학살

- 1976년 한국군 증오비(현재 위령비)가 섰던 푸옌성의 봉따우-토럼 학살.
- 1966년 1월 2일 봉따우학살로 주민 37명 희생, 이중 2명 15세 미만 여성 강간 피해

* 출처: 베트남 인민군대신문 기사 (1966.1.30)



푸옌성 봉따우-토럼학살 위령비, 2022년 촬영 © KVPF

• 젠더적 관점이 부재한 기존의 시선이 갖는 한계

- 민간인학살 사건 중 전시성폭력이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거나 주변화하여 다루게 됨.
- 국가폭력(전쟁, 학살)의 잔인성, 선정성만 부각시키고 소비될 위험성.
- 전쟁 당시 여성들이 다양한 층위에서 전쟁과 대면하고 피해를 입은 점들을 입체적으로 다루지 못함.
- 1960~70년대 한국 남성의 성문화, 인권 감수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고려되지 못함.

3 베트남전 한국군 전시성폭력에 대한 오해

•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위안소 운영?

- 한국전쟁 당시 위안소를 운영했던 한국군, **베트남전쟁에서도 운영을 검토.**
- 총사령관 채명신 장군이 회고록에서 베트남전 당시 위안소 운영 계획을 언급.
- 일본의 <주간문춘>이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을 고용한 '증기탕' 형태의 '한국군 전용 위안소'를 운영을 보도했으나 **오마이뉴스는 심층취재 결과 허위로 판단.**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국군 전시성폭력 문제를 동일시하는 일부 대중의 심리.

3 베트남전 한국군 전시성폭력에 대한 오해

• 전시성폭력 x 라이따이한 문제

- 해외에 가장 많이 알려진 베트남전 한국군 전시성폭력 피해자 찐티응아이(당시 24세). 한국군 강간 피해로 낳은 아들 찐다이넷 또한 대표적인 라이따이한 피해자.
- 전시성폭력과 라이따이한 피해는 교집합의 영역이 존재하지만 소수. 피해의 원인과 양상이 각각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언론에서 이러한 점이 다뤄지지 않은 채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
- 한국 정부의 침묵과 방관 속에 극단적인 사례가 대표됨.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지고 해당 문제에 대한 불신과 여론 갈등 초래.

• 사례: 베트남전 한국군 전시성폭력, 라이따이한 문제 관련 언론 보도

● This article is more than 3 years old

Women raped by Korean soldiers during Vietnam war still awaiting apology

Campaign group urges recognition for women affected by sexual violence of Korean troops and the children born as a result



“I lost everything”: Tran Thi Ngai, a Vietnamese nurse who was raped at the age of 24, says she lost her home and her freedom as a result. Photograph: Courtesy of JLDH

영국 가디언 보도(2019.1.19) “베트남전 한국군 강간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
© 기사 화면 캡처

영국 시민 단체, 런던에 ‘라이따이한’ 알리는 동상 세운다

입력 2019.06.11 (20:20) | 수정 2019.06.11 (20:34)

원치

♡ 2

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참전 군인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라이따이한’ 문제를 고발하는 동상이 영국 런던에 세워집니다.

시민단체 Justice for Lai Dai Han 의
한국군 성폭력, 라이따이한 문제 동상 건립 관련
KBS 기사(2019.6.11) © 기사 화면 캡처

• 사례: 베트남전 한국군 피해 관련 동상



제주 강정 마을에 건립된 베트남피에타 © KVPF



영국에 건립된 모자상(Mother and Child)
© Justice For Lai Dai Han

4 나비기금이 베트남에서 겪는 어려움

• 한국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

- 20년간 이어진 한국 시민사회의 베트남전 과거사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해온 한국 정부. 현재까지도 관련 자료의 공개를 강력하게 거부 중.

• 베트남 정부의 보수적인 과거사 입장

- ‘과거를 닫고 미래로 향하자’라는 외교적 입장 유지. ‘과거를 닫는다’는 표현은 과거에 대한 망각을 뜻하는 것은 아님. 한국군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 활동을 제지하지는 않으며, 적정선에서 언론 보도를 허용.

• 전시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 베트남 특유의 폐쇄성으로 베트남 중부 현지의 피해자 조사와 접근이 매우 어려움. 베트남 내에 전시성폭력 문제 관련 피해자 지원 단체도 없음.

4 나비기금이 베트남에서 겪는 어려움

• '미투 운동' 무풍지대 베트남

- 사회주의와 전쟁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여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폭력 문제는 다름. 현재 베트남에서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은 전혀 대중화되지 못함. 성폭력 피해자들의 자기 목소리 내기와 대중 공감 어려움.

• 한-베-일의 물고 물리는 과거사 문제

- 한국/베트남/일본이 가해와 피해의 자리를 오가며 다투는 과거사 문제
- 베트남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막강한 경제, 외교의 영향력

5 나비기금-베트남 연대 방안 제안

• 젠더 관점의 베트남전 전시성폭력 문제 접근 확대

- 전시성폭력 문제는 국가폭력과 젠더 폭력이라는 두 관점의 접근이 모두 필요. 구조적 접근을 통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다양한 관점을 통한 문제의 다층성에 대한 성찰 필요.

• 나비기금 관련 피해자 아카이브 자료의 활용 및 연구

- 베트남전 한국군 전시성폭력 피해자 증언 영상 자료의 녹취, 번역, 분석 등의 연구 작업

5

나비기금-베트남 연대 방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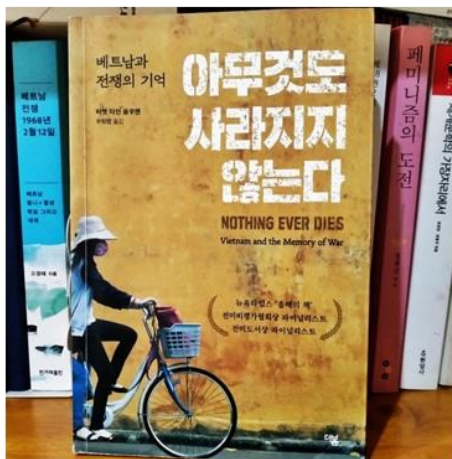
• 베트남전 한국군 전시성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 자료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는 매우 다른 차원인 베트남전 전시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성찰의 지점을 제안하는 교육 자료 제작

• 베트남전쟁과 베트남 여성을 주제로 한 연구, 창작 활동 지원

- 나비기금 지원 피해자의 증언에만 의존한 한국군 전시성폭력 문제 제기는 한계가 있음. 구조적인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현주소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창작 활동이 필요.

이야기를 끝내며



**“강간은 분명히 인간을 전쟁으로
몰고 가는 집단적 살해 욕망의 표현이다.
모든 병사가 강간범은 아니지만
모든 군대가 강간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응우옌 비엣 타인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에서

• 참고 자료

<한베평화재단 소장 아카이브 자료>

-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관련 베트남 문헌자료 (63건)
-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 민간인 학살 관련 베트남 당위원회 역사서 (33건)
- 베트남 인민군대신문 기사(1966~1972) -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 민간인 학살 관련 (102건)

<기사>

- 원한은 내가 짊어지고 갈게, 한국 친구들에게 잘해줘, 한겨레, 2013.7.5
- 할머니의 어떤 기억, 한겨레, 2015.4.14
- 한국군, 베트남전에서 '위안소 기획'은 했었다, 오마이, 2015.8.3
- '전시성폭력' 이야기라면 이제 충분히 들었다고? 일다, 2019.7.8
- 과거사 진상규명, 이젠 젠더 관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프레시안, 2022.2.14

<논문>

- 한국전쟁 전후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김상숙, 사회와 역사, 2021년
-



감사합니다

a Piece of Peace, a Piece for Peace

평화의 한 조각으로
세상의 또 다른 수많은 조각을 찾아갑니다

나비기금-로HING야 연대 방안 제안

| 권정화(월드비전 활동가)

World Vision

**나비기금 10주년
‘나비기금-로HING야 연대방안’**

한국월드비전 국제구호/취약지역사업팀 권정화 과장
2022. 03. 04


World Vision
SINCE 1950

- 로HING야난민 대상 GBV 위험경감사업
 - 대응) 여성 및 여아
 - 예방) 남성 및 남아
- 나비기금과의 연대방안

로HING야 난민 현황

> 배경

- 대정부 테러행위 토벌 이란 이유로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HING야 민간인 대상 '인종청소'
- 로HING야 민족성 훼손: 군인/국경수비대/민병대 → 강간/집단강간 및 성노예 목적 납치
-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로 이동 후 난민캠프 형성 (세계 최대규모)
- 등록된 난민 인구수 920,994명

> GBV 현황

- 81%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 50% 증가
- 보호서비스를 찾는 여성/여아 50% 감소
- 봉쇄기간동안 미필수활동으로 분류



POPULATION UPDATE



출처: UNHCR Operational Data Portal / 2022년 1월 기준

사업 기간	2020년 2월 26일 ~ 2021년 12월 31일 (22개월)	
수혜자 수	직접 수혜자 37,146명 (중복 수혜자 포함)	
세부활동	1. 여성과 여아의 GBV 서비스 접근성 및 대응력 향상	2. 지역사회의 GBV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1.1 여성 및 여아를 위한 안전한 공간 조성 1.2 GBV 보호 서비스 지원 1.3 권리 신장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2.1 남성과 남아 GBV 인식 개선 환경 조성 2.2 종교/공동체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2.3. 지역사회 내 보호 환경 조성



WV KOREA 70th Anniversary 4

(대응활동) 여성 및 여아



GBV 인식개선 세션 - 여성 참여자

"저는 코이카 사업에서 운영하는 여성보호센터를 8개월째 다니고 있어요. 이곳에 다니면서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제 남편은 집에서 저를 때리곤 했습니다. 저는 젠더기반폭력이 무엇인지 몰랐고, 여성들에게 평상시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에 온 뒤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이 여성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었답니다."

Ayesha Akter Ruma (여성참여자)



GBV 인식개선 세션



심리사회적지원 세션

(대응활동) 여성 및 여아

World Vision



역량강화 프로그램 (재봉수업) 참가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공예수업) 참여



여아들이 만든 발매트



여성들이 만든 물품 (옷, 마스크, 티슈케이스)

WV KOREA 70th Anniversary 6

(예방활동) 남성 및 남아

World Vision



청소년 워크숍 (수용공동체)



GBV 인식개선 세션 - 로힝야 난민 남아



GBV 인식개선 세션 - 공동체 지도자



GBV 인식개선 세션 - 보호위원회

WV KOREA 70th Anniversary 7

(예방활동) 남성 및 남아

World Vision



'희망의 통로' 참가 캠프 종교지도자

"당시 월드비전은 신부지참금과 조혼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었어요. 신부지참금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설교 시간에 신부지참금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저의 설교를 들었던 Jalal Ahm은 신부지참금이 종교법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단순히 문화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또 본인의 아들이 결혼할 때 지참금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는 신부지참금 없이 아버지가 딸을 결혼 시킬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사회에 자리한 악습을 버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습니다."

Mawlana Nurul Amin (종교지도자)



'희망의 통로' 세션 - 수용공동체 종교지도자



16 Days of Activism against GBV 캠페인

WV KOREA 70th Anniversary 8

나비기금과의 연대방안

World Vision

- ❖ 현지 Core 인력/GBV분야 전문가 양성
 - GBV에 대한 공동의 이해 및 사회구조적(문화, 관습, 정책 등) 변화 필요
 - 활동가/전문가/학자들을 통해 이해 확산 (연구 등)
- ❖ 옹호활동 확대 및 강화
 - GBV경감사업에 대한 국가별 이해도/필요에 대한 인식 다양
 - 국가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인 옹호 (라디오, SNS, 집회 등)
- ❖ 사업의 장기적 계획 수립
 - GBV분야 내 다양한 활동(심리지원, 역량강화, 법률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 사례관리, 자립/보호센터/안전가옥 운영 등) 및 기관(유엔, NGO, 학계, 기업, 정부) 존재
 -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 목표 수립을 위한 선택과 집중

WV KOREA 70th Anniversary 9



감사합니다

